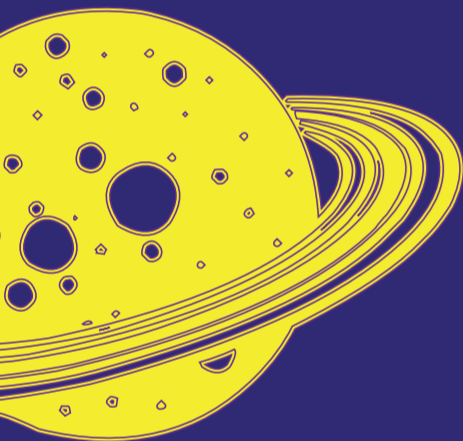




APAP7 국제 학술 컨퍼런스 - 프레 라운드 테이블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3년 하계 학술대회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Governance
in the Arts and Culture

2023.08.25

12:00-17:00

안양파빌리온



주최

ACM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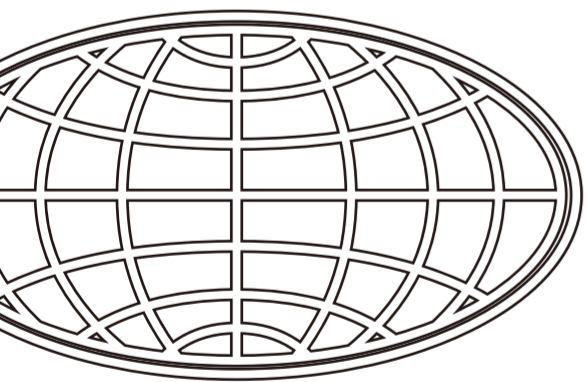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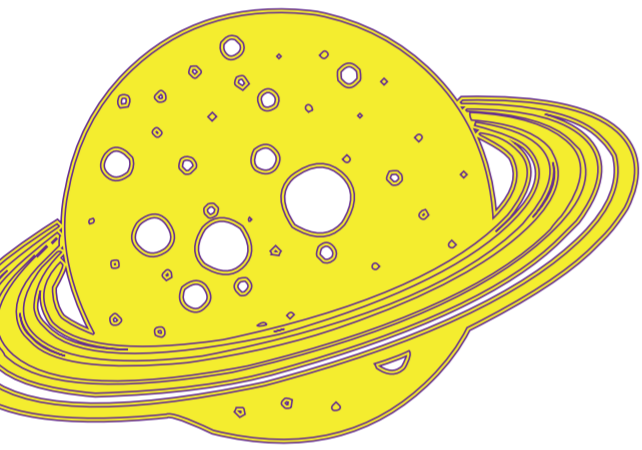
안양문화예술재단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APAP7 국제 학술 컨퍼런스 - 프레 라운드 테이블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3년 하계 학술대회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1. 대학원생 연구 발표

12:00 - 14:00

좌장 **이진우** 가톨릭대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이행기 예술인에게 미치는 거버넌스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정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박사과정

컨셉투어링의 구성 요소로 보는 공연기획자의 역할 변화
손수강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장경영전공 전문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 생태계 변화 연구
오수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의 우울에 대한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도운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영화 관람에 따른 힐링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최진화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사

국내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린 서비스 디자인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식 구축 연구
염주선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 **Commentator: 김진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손재영**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류승완** 중앙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장 개회사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새편집방향 소개 및 연구윤리교육

류승완 중앙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2. 일반세션

좌장 **김선영**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4:00 - 15:30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 연구 -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민지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교수

▶ **토론: 구보경**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예술로 도시 살리기: '릴 3000'과 '문화도시' 속 거버넌스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적 고찰
김한별 안양문화예술재단 큐레이터, **김설아**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토론: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해외유학 이전과 이후의 한국 이미지 인식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문화예술 관련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육준우 한중문화예술교류원 부원장, **주희현** 아트스페이스노 대표

▶ **토론: 심규선**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포용적 예술교육의 장애예술경험 실행연구
윤보경 움직임예술원 문화마루 대표

▶ **토론: 이보람** 남호주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3. 기획세션: Round Table

15:30 - 17:00

좌장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문화예술에서의 거버넌스: 비교론적 접근 Governance in the Arts and Culture: A Comparative Approach

Audrey Wong 싱가포르 라셀예술대학 교수, **Bernard Darras** 프랑스 파리1 팡테옹 소르본대학교 교수,

Iain Robertson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Motohiro Koizumi**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

Rachel Shane 미국 켄터키대학교 교수, **Ruth Rentschler** 호주 남호주대학교 교수,

Tom Borrup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Young Xiang**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2023.08.25

12:00-17:00

안양파빌리온

<초대의 말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폭염 속 수고로움 덕분에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는 저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와 안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APAP국제학술회의와 연계되는 정기학술회의로 기획하여 이틀에 걸쳐 “문화예술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하계학술회의에서는 특히 다양한 대학에서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노고가 담긴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세션에서는 문화예술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의 연구사례들을 발표합니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8.26(토)에 있을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국제학술대회와 사전행사로써 7개국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국가에서 논의되는 문화예술부문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미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토론합니다. 본행사에 앞서 다음날 있을 열띤 토론의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순도 높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안양예술공원의 계곡을 음미할 수 있는 안양파빌리온에서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1. 대학원생 연구 발표>

이행기 예술인에게 미치는 거버넌스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정엽(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박사과정)

본 연구는 2019년 이후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한 '청년예술 거버넌스'를 기존의 문화예술행정의 차원에서 시도된 거버넌스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해보려는 시도으로써 문화예술행정 및 정책 내에서의 거버넌스의 참여경험이 이행기 예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대상을 거버넌스 자체로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참여예술인들의 경험과 인식에 집중하여 범위를 설정한 이유가 그것이다.

그동안의 문화예술 거버넌스에 관한 학술적 논의들은 주로 정책의 당위를 보론하기 위한 측면을 지니며 편의적 행정과의 대조 속에서 대안으로 등장할 뿐 실제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뤄진 바 없다는 점에서도 해당 연구는 필요성을 지닌다.

거버넌스라는 형식을 정체화의 수단으로 삼았던 '청년예술정책'과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 거버넌스로의 사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 살펴본다. 거버넌스가 청년예술인을 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참여 경험이 이행기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1) 청년예술과 거버넌스와의 상호관련성 2)이행기 예술인에게 미치는 거버넌스 참여경험 3)거버넌스 구조와 형태에 대한 실험과정을 토대로 분석한다.

주제어: 문화예술 거버넌스, 청년예술, 예술정책, 이행기 예술인

<1. 대학원생 연구 발표>

컨셉투어링의 구성요소로 보는 공연기획자의 역할 변화

손수강(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장경영전공 전문사)

팬데믹 전후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공연예술 아티스트와 기획자들은 예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한 담론을 나누기 시작했다. 비전통적인 공연제작 방식이자 유통방식인 ‘컨셉투어링’ 역시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의 한 방법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금, 컨셉투어링이 전통적인 공연예술을 탈피하는 형태의 새로운 투어링 방식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통해 컨셉투어링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며, 공연 형태에서뿐만 아니라 공연기획자의 역할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예술경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컨셉투어링’은 런던국제연극제(LIFT)에서 명명한 개념이다. 이는 투어링에서 완성된 공연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컨셉’이 이동하여 현지에서 협력을 통해 무대에 올라가는 형태의 공연제작 방식이자 유통방식으로 의미한다. 용어 자체는 2020년 런던국제연극제 컨셉투어링 레지던시 공모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공연을 만드는 예술 단체는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이는 현재 컨셉투어링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사료이자 영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팬데믹 전후로 컨셉투어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작품 및 공연단체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는 존재하는 컨셉투어링 연구 결과보고서 및 작품 사례들을 바탕으로 컨셉투어링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추가로 전문 기획자 및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컨셉투어링에서 공연기획자의 역할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컨셉투어링 작품을 설계해보았던 경험을 되돌아보며 컨셉투어링의 특징을 직접 적용해보고, 공연기획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컨셉투어링은 작품의 가치, 즉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연기획자의 역할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주제어: 컨셉투어링, 공연기획자의 역할변화, 지속가능성

<1. 대학원생 연구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 생태계 변화 연구

오수영(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가속화된 공연예술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공연예술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최근 공연예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론에 대한 논문과 보고서, 기사 등의 문헌 연구와 현장의 사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공연예술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창작(생산)-매개(유통)-향유(소비)' 구조로 간결하고 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창작물을 실연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유통단계로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공연예술 생태계는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고, '유통과정'에서 혁신을 불러오면서 기존의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온라인 공연예술 생태계에서는 연결과 참여에 따른 창작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졌고, 유통 혁신에 따라 관객인 향유자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향유방식이 다각화됨에 따라 관객의 개념이 확대되었다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더 나아가 공연예술 생태계에 플랫폼 경제 혹은 창작자 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개념과 수익구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공연예술 생태계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기술과의 융합'에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예술가의 창작 범위가 확장된 사례, 장르 전용 공간을 탈피한 사례, 소비자의 참여가 중심이 된 사례로 각각 구분하여 진행했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의 목표지향적인 지원사업 진행과 창작자들의 기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과정 중심의 예술'이 주목받으면서 창작활동이 '유통'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예술가들은 기술을 주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동 제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공연예술을 포함하여 예술의 역할이 '정보재로서의 자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술가와 향유자 간의 거리가 좁혀졌고, 이에 따라 접근성이 강화되어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넷째, 온라인 공연예술 생태계로 접어들면서 '정보 지식 체계로서의 콘텐츠'로 공연예술을 수용하는 이용자, 소비자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성격과 취향 파악을 토대로 소비자 참여 중심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연예술의 궁극적인 본질과 그 가치를 상기하면서 새로운 공연예술 생태계 내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 사례를 살펴보았다는 점, 분석을 통해 생태계 내 주요주체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각과 가치관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술을 융합하는 예술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 필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포스트코로나, 공연예술 생태계, 예술의 기술융합, 온·오프라인 병행구도

<1. 대학원생 연구 발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의 우울에 대한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도윤(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한국 사회는 높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성장 대비 저행복 상태이다. 특히 노인은 타 생애주기보다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오랜 기간 압도적인 차이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노인은 행복의 관점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또한,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인이 마주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해결이 시급한 노인 자살 문제의 주요 원인인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중 문화예술이 높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문제 영역은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전인적 관점으로 문화예술을 기반한 '사회적 처방'을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빠르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주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노년기 우울 증상에 대해 문화예술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에 기반한 전인적 개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설계는 정량적, 정성적 접근을 혼합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정량적 접근으로 회복탄력성 모델 중 '위험-보호 모델'을 기반으로 노년기 우울 증상의 위험 요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문화예술 활동(보호 요인) 참여에 따른 완충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성적 접근으로 이러한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효과가 노인 우울의 감소에 어떠한 과정과 체계로 나타나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여러 사회적 처방 모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고려한 '한국형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노인 우울, 커뮤니티 케어, 회복탄력성

<1. 대학원생 연구 발표>

영화 관람에 따른 힐링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최진화(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사)

최근 사회의 발달과 변화, 과학의 기술로 우리의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정서적 배고픔을 호소하며, 정서적 배고픔이 채워지길 원한다. 사람들은 정서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힐링의 개념과 명칭을 문화예술 및 대중문화로 확장시키고 통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영화 관람에 따라 어떠한 힐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힐링 욕구가 힐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힐링의 동기로 영화 관람에 따라 받고 있는 힐링 유형에 대해, 그리고 영화 관람에 따른 힐링 유형과 힐링 욕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째, 영화 관람 시 영화 작품 요소와 힐링 유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힐링 욕구와 힐링 유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영화 관람 시 영화 작품 요소와 힐링 욕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소비자는 힐링의 동기로 영화 관람을 할 때 힐링 유형으로 카타르시스형, 영화 작품 요소에서는 영상, 힐링 욕구에서는 내면극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의 힐링을 받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는 영화 관람 시 미소와 유쾌로 그리고 위로와 공감으로 힐링을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힐링 욕구에서는 소비자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성찰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많은 주는 것으로 나왔다.

주제어: 영화 관람, 힐링, 힐링 유형, 힐링 욕구, 영화 작품 요소

<1. 대학원생 연구 발표>

국내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린 서비스 디자인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식 구축 연구

염주선(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본 연구는 대만의 산업관광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관광 운영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린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산업관광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산업관광이란 1차, 2차, 3차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현장을 중심으로 관광하는 행위이다. 이는 산업관광을 운영하는 기업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관광 형태이다. 일례로, 해외(유럽, 대만, 일본)의 우수한 산업관광의 시설 및 단지·지역은 전시 위주의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체험, 교육, 편의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관광 홍보물 제작 및 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음성군은 '산업단지'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흥미진진한 팩토리 투어' 산업을 9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관광은 단순한 기업 견학, 산업시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시설 운영자의 기준으로 관람의 허용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관광은 국가의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기업 자체의 개발과 투자 상황은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속해서 운영되려면 관광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운영 비용을 잘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자는 공장견학이 관광사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의 산업관광 서비스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로, 산업관광 서비스 디자인 문헌 연구 및 국외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대만기업의 산업관광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서비스 접점 별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산업관광 현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새도잉을 수행하였다. 넷째로, 선행연구와 산업관광에 방문한 관광객 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린 기반 산업관광 서비스 디자인 전략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기존에 산업관광을 운영하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서비스 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산업관광을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제한된 비용으로도 기업 홍보와 관광객 증가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개선된 산업관광을 통해 관광객들은 기업의 역사와 브랜드 가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심이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지역 산업관광 육성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젊은층의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다.

주제어: 산업관광, 공장견학, 서비스 디자인, 린, 사용자 경험

<2. 일반 세션>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 연구 -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민지은(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교수)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문화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접근성'과 그 연장선인 포용적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프랑스 문화시설들은 소장품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등 디지털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구축에 참여해왔다. 그리고 디지털로 가공한 소장품들은 향유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되어 '개개인을 위한 문화' 실현에 활용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문화시설들이 그동안 개발한 디지털 자원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실험의 장을 조성하였다. 디지털 자원은 문화예술교육에서 물리적 접근성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포용적 교육 관점에서는 개개인이 처한 환경을 모두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격차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켰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팬데믹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기본 축으로 삼고 디지털 기술을 모든 어린이가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아다쥬(Adage)』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시설 및 학교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플랫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배제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문화시설은 통합적 관리 시스템에 교육프로그램을 등록함으로써 학교와 협력하여 거시적 차원의 포용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는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수업 기안부터 예산 집행까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 『아다쥬』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아다쥬』를 통해 습득한 데이터를 기초로 지역 간 교육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지역별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실천적 차원에서의 포용적 교육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아다쥬, 접근성, 포용적 교육

<2. 일반 세션>

문화예술로 도시 살리기: '릴 3000'과 '문화도시' 속 거버넌스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적 고찰

김한별(안양문화예술재단 큐레이터)

김설아(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본 연구는 지방의 도시를 살리기 위한 공공 정책 내에서 문화적 거버넌스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랑스의 북부 산업도시 릴이 2004년에 성공적으로 치룬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 '릴2004' 이후, 3년마다 진행시키고 있는 '릴3000' 프로젝트와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릴은 '릴2004'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인해 영국의 글래스고와 함께 유럽문화도시의 성공적 사례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대한 여러 성공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공 요인은 공적분야, 민간분야, 문화예술분야 사이에 형성된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작동과 역할이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 역시 '릴2004'의 성공요인이었다. 이러한 릴의 문화적 거버넌스의 역동성은 '릴2004'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릴3000'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이후 2006년 부터 현재까지 3년 간격으로 진행되는 '릴3000'은 릴이라는 도시가 들이쉬는 숨결의 색깔과 방향이 문화예술에 서서히 접목되도록 바꾸어 놓았다.

실제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한 공공예술프로젝트와 2020년대 들어 '도시공동체'에 집중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활성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도시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상 그 거버넌스의 운영과 조직이 동반성장하고 있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거버넌스의 순조로우면서도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릴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후,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에서도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비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 속에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지양하고 문화적 상대성을 충분히 고려한 비교적 관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주제어: 문화적 거버넌스, 릴3000, 문화도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청주문화도시사업

<2. 일반 세션>

해외유학 이전과 이후의 한국 이미지 인식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문화예술 관련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육준우(한중문화예술교류원 부원장)

주희현(아트스페이스노 대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문화예술 산업의 영향으로 문화예술 관련 국내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관련 전공 중국인 유학생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유학 전후 한국 이미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탐구하였다.

국가 이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 정치, 관계, 국민, 문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심층 인터뷰 결과, 경제적 이미지는 도시 이미지에서 생활 소비 이미지로, 정치적 이미지는 비개념적 인식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 분위기 및 민주화 수준인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관계적 이미지는 한중 우호 상황파악에서 한국 국내의 정치 환경이해로, 국민적 이미지는 외형적 요소에서 실생활 경험에 따른 조직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인식으로 변화하였다. 문화적 이미지는 미디어 시청에서 문화예술 현장 참여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유학 전후의 이미지 인식 변화는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력, 만족도, 미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학생들은 유학 기간 동안 학업과 연계되는 현장 훈련 및 경험, 경력,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미래 유학생들의 연계점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한국 이미지의 소비자 그룹임을 감안 할 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이미지 인식 변화를 이해하고, 국내 유학환경을 점검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해야 할 연구과제라 사료된다.

주제어: 한국이미지, 중국인 유학생, 유학생 인식변화, 이미지 인식변화, 문화예술교류

<2. 일반 세션>

포용적 예술교육의 장애예술경험 실행연구

윤보경 (움직임예술원 문화마루 대표)

본 연구는 장애예술의 영역과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포용적 예술의 교육적 실효성을 살펴보고, 장애예술의 지향점과 그 실천방향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의 다양성을 개인의 고유성으로 인정하는 포용적 예술을 기반으로 기획된 예술교육에 참여한 참가자의 예술경험의 과정을 관찰한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서, 총 22명의 한국과 호주의 예술가, 장애인, 공동기획자, 영상기록자가 동참한 국제협업프로젝트에 참여한 장애인과 예술인의 예술적 성취과정을 돌아보았다. 참여한 장애인과 비장애예술가의 협업 구조속에서, 연구-실행-반성-재인식의 단계를 거치며 형성되는 예술적 촉진과정과 인식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예술가들이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의미를 반추해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비장애예술가들과 참여장애인과 1:1 매칭을 통해 창의적 협력관계를 구현한 결과, 서로 매칭파트너를 신뢰하며 예술적 에너지를 교류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참여자 모두 장애를 결핍 등의 차별적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타인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했음을 스스로 증언하였다. 특히, 참여장애인은 협업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예술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고 예술행위에 몰입하며,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새롭고 즐거운 경험으로 내재화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예술가들은 이전의 장애에 대해 가졌던 차별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선입견을 반성하였으며 비대면 협업을 통해서도 예술적 교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기술이 아닌, 바로 포용적 예술교육이라는 철학이었음을 참여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가 불리한 조건이 아닌, 또 하나의 고유성으로서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예술교육 개념이 기반된 장애주도의 예술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장애인과 예술가의 창조적 협력을 매개할 전문 에듀케이터 양성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활용한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언한다.

주제어: 포용적예술, 장애예술, 장애예술교육, 예술협업, 실행연구

<3. 기획세션: Round Table>

문화예술에서의 거버넌스: 비교론적 접근 Governance in the Arts and Culture: A Comparative Approach

좌장: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Panel

Tom Borrup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Bernard Darras (프랑스 파리1 팡테옹 소르본대학교 교수)

Motohiro Koizumi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

Ruth Rentschler (호주 남호주대학교 교수)

Iain Robertson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Rachel Shane (미국 켄터키대학교 교수)

Audrey Wong (싱가포르 라셀예술대학 교수)

Young Xiang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이번 2023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하계 학술대회의 주제는 문화예술에서의 거버넌스이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거버넌스란 용어 자체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해당 개념은 그것의 맥락과 적용 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김인설 교수의 사회로, 7개국의 8명의 해외 우수 학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그리고 특정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당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본 라운드 테이블은 청중이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용되는 거버넌스의 주요 담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연구윤리규정

2008년 10월 1일 제정 / 2021년 6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할 연구 및 보고논문을 제출하거나 심사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

-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연구 및 보고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이중투고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조’는 허위로 연구자료 및 결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 또는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관계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저자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
 -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 (심사자의 윤리)

-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는 『문화예술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윤리위원이 호선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5.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역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1. 위원회는 조사 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2.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서면공고
 - 2) 논문이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 3) 논문이 이미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문화예술경영학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지)
 - 4) 향후 3년간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논문투고 금지
 - 5)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위반 사실을 공지

제8조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1.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2.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이사진

(2023년 5월 26일 ~ 2024년 12월 31일, 제 8기 임원)

| 직무 | 성명 | 소속 |
|---------------|-----|---|
| 고문 | 박신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
| | 양현미 |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 이용관 |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
| | 신형덕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 류승완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회장 | 홍기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학 교수 |
| 부회장 | 김세훈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
| 총무이사 | 민정아 |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
| 편집위원장 | 류승완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학술위원장 (공동) | 장웅조 |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 이진우 |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
| 학술이사 | 최보연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 | 안채린 |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 | 정우정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 | 김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김새미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
| 교육이사 | 김인설 |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
| | 김선영 |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 서영덕 | 추계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학과 교수 |
| | 민지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대외협력이사 | 강은경 | 서초문화재단 대표 |
| | 김수현 | SBS 문화부 전문기자 |
| | 최정은 | 클레이아트뮤지엄 관장 |
| | 황윤숙 | 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
| | 송준민 | (주)제이콥스플래닝앤디자인 대표 |
| | 음성원 | 한국 에어비엔비 미디어정책총괄 |
| | 임은아 | 문화기획 호미 대표 |
| 국제협력이사 | 이수희 | University of Kent 경영대학 교수 |
| | 김재범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 | 이혜경 | King's College London 문화미디어창조산업학과 교수 |
| | 이보람 |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예술경영학과 교수 |
| | 조효정 | Texas Tech Univeristy 교수 |
| | 고영아 | Miami University, Arts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교수 |
| | 류선정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
| 연구기획이사 | 강윤주 |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 신혜선 | 위컬쳐 리서치앤컨설팅 대표 |
| | 주연화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 | 이민하 | 중앙대학교 창의ICT 공과대학 융합교양학부 교수 |
| | 심규선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 | 손재영 |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 감사 | 성원영 | 중앙그룹 법무홍보실 변호사 |
| 사무국장 | 김정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박사과정 |
| 학술위원회 간사 | 장수혜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
| 편집위원회 간사 | 손혜진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

편집위원회

| 역할 | 명단 및 소속 |
|-------|---|
| 편집위원장 | 류승완(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편집위원 | 홍기원(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전공 교수) |
| |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
| | 장웅조(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 김인설(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
| | 서영덕(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학과 교수) |
| | 이민하(중앙대학교 융합교양학부 교수) |
| | 안채린(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 | 장혜원(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
| | 유승호(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
| | 최인경(전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 |
| | 박승희(영남대 국어국문학과) |
| | 구보경(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 | 육주원(경북대학교 사회학과) |
| | 민정아(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
| | 손재영(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
| | 이진우(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
| | 임성운(평택대학교 미술치료학과) |
| | 박지민(파리 SceincesPo. 방문교수) |
| | 최보연(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 | Eleonora Redaelli (University of Oregon, USA) |
| | Claudia Bach (Seattle University, USA) |
| | Chengzhong Wu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China) |
| | Sun-Man Tseng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Kong, China) |
| | 이수희(University of Kent, UK) |
| | Ruth Rentschler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ustralia) |
| | Javier Hernandez (Universidad del Sagrado Corazón, Porto Rico) |
| | 고영아(Miami University,USA) |
| | Jen Snowball (Rhodes University, South Africa) |
| | 이보람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ustrali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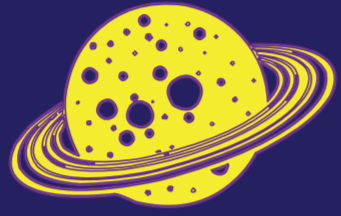
2023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장웅조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공동위원장: 이진우 가톨릭대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위원: 류승완 중앙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간사: 김정엽 서울과학기술대 박사과정 / 장수혜 홍익대 박사과정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3년 하계학술대회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ACM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안양문화예술재단 
—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

